

섬유 전시회 9월4일 KOEX 개최

섬유기업들의 전시·판매 행사인 <프리뷰 인 서울 2007>가 9월4-6일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린다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8월27일 발표했다.

전시회는 한국-미국 FTA 협정 추진에 따른 미주지역 수출활성화 기대와 7년만의 섬유수출 증가세 반전 흐름 가운데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들의 대규모 참여로 주목되고 있다.

전시회 주최측인 섬산연은 “Face to Face를 테마로 한 전시회에는 섬유소재, 부자재, 섬유IT, 의류 프로모션 기업 등 모두 213개사가 422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고, 국내기업은 178개사 366개 부스, 해외기업은 35개사 46개 부스”라고 밝혔다.

특히, 파카, 영텍스타일, 영풍필텍스, 덕산엔터프라이즈, 백우, 북정무역, 삼일니트, 성일산업, 세창상사, 오공섬유, 비엔월드, 제이케이패브릭, 탑상진, 한수섬유 등 국제경쟁력을 앞세운 전문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섬산연은 “패션(Fashion)과 펑션(Function)의 결합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 소재제품과 별도로 기능성 제품들을 모아놓은 펑션 포럼(Function Forum)을 운영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또 “2007년에는 바이어들의 사전 참가신청이 2006년보다 40% 정도 증가하는 등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”면서 “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, 일본 등지의 바이어 참관도 증가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 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8/28>